성인 애착 표상의 세대간 전이 :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Korean-American Mothers and Their College Students :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이고은(Goh-Eun Lee)[1)]
이 영(Young Lee)[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mo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 as well as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their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25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mothers and 27 second generation college students residing in Los Angeles.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George, Kaplan, & Main, 1985) was used for assessing attachment representation patter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36% of the subject mothers were classified as secure, 64% were insecurely attached and there was no unresolved/disorganized pattern in the insecure group. Second, 33% of the subject students were classified as secure. 67% were insecure on the AAI, and there was 4% unresolved/disorganized patterns in the insecure group. Third, a difference of 76% was found between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mo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 pattern and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애착표상(attachment representation), 성인 애착 면접 (adult attachment interview), 재미교포(Korean-American).

---

* 이 논문은 2010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요약문의 전문임.

[1)]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younglee@yonsei.ac.kr

Ⅰ. 서 론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Bowlby(1969, 1982)는 생애 초기에 특별한 타인, 즉 주 양육자와 반복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개인의 내적 표상인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형성되고 이 내적 실행모델은 이후의 모든 애착체계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Bowlby(1973)는 영아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낼 때 애착 대상인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에 의해서 내적 실행모델이 조직되고 조절 되어서 유아기, 청소년기로 지속되고 성인기 부모가 되어서도 양육행동까지 영향을 준다고 예시하였다. 이처럼 Bowlby는 애착 형성에 있어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더불어 초기에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다음 세대로 까지 이어진다는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이론은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 측정 도구인 성인 애착 면접(AAI; George, Kaplan, & Main, 1985)의 개발에 의해 지지되었다. 성인 애착 면접은 초기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성인이 된 현재 어떠한 마음상태로 남아있는지를 평가하는 반 구조화된 심층적 면접 질문지이다. 많은 연구들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을 평가하고 어머니 자신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유형을 비교하여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자녀의 애착 유형과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간의 상당한 일치율을 보였다(장미자 · 조복희, 1999; 진미경, 2006; 최해훈 · 이경숙 · 김태련, 1998; Fonagy, Steele, & Steele, 1991; Ward & Carlson, 1995).

이러한 애착 연구의 흐름 속에서 성인 애착 면접(AAI)을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애착 대상이 생기는 시기인 후기 청소년기와 대학생 그리고 부모가 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알아보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Broussard & Cassidy, 2010; Kobak & Sceery, 1988; Resse, 2008; Sagi, van IJzendoorn, Scharf, Koren-Karie, Joels, & Mayseless, 1994). 이들 연구에서 정상집단의 애착 표상 유형의 분포는 안정-자율유형이 가장 많고, 불안정-거부유형, 불안정-몰입유형 순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안정-자율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의 86%가 신생아기에 그들의 어머니들로부터 긍정적으로 지각되어진 것으로 나타났고(Broussard & Cassidy, 2010), 다른 애착 표상 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들과의 경험에 대해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이들 자녀들은 자아개념(self-concept)을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Resse, 2008). 또한 대학생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유형과 또래 친구를 대하는 적개심, 걱정, 자아 회복, 자아 통제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된 애착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하여 모든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애착의 세대 전의 현상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애착 연구들에서 애착 유형이 안정적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다(Egeland & Farber, 1984; Egeland & Sroufe, 1981; Vaughn, Egeland, Sroufe, & Waters; 1979, Waters & Cummings, 2000). 이들 연구에서는 영아기에 형성된 내적 실행모델은 초기 아동기를 거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지만 이전과 다른 애착관련 경험이 반복되면 변화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애착의 불연속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Ainsworth(1978)가 낯선 상황실험을 고안한 이후 약 30년 동안, 대부분의 애착 연구들은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유형은 안정적으로 지속되

고 다음 세대에 까지 이어진다는 Bowlby의 애착 안정성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애착 유형간의 높은 일치율을 중심으로 행해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애착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애착 유형의 높은 일치를 보여주는 정상 집단이 아닌, 위험도가 높은 집단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애착 불안정을 제시하였다(Hamilton, 2000; Waters, Merrick, Treboux, Crowell, & Albersheim, 2000; Waters, Weinfield, & Hamilton, 2000; Weinfield, Sroufe, & Egeland, 2000). 이들 연구에서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변화가 애착 유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이혼이나 신체적 학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는 유아기를 지나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애착 표상 유형을 변화하게 하는 관련 변인으로 보고하였다(Hamilton, 2000; Weinfield, Sroufe, & Egeland, 2000). 또한 우울증을 가진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가용성과 민감성 결여와 부부 갈등도 유아의 애착 유형 변화에 관련 변인으로 제시하였다(Cummings & Davies, 1996; Waters, Weinfield, & Hamilton, 2000).

위에서 살펴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애착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으로 제시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어머니의 개인차원에만 속한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과 이들과 관련된 모든 체계들을 포함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Cain(2006)은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 부부관계, 형제 관계, 가족 형태와 같은 가족 체계와 지역사회의 지지, 사회적 경제적 지원, 문화적 영향 등의 사회문화적 관련 체계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아와 부모 주변의 환경적 요소들의 변화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변화와 더불어 애착 불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환경적 변화 중에 이민자들이 경험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민세대들은 태어나서 성장한 고국을 떠나서 언어, 문화, 음식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데 경험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고 보고하였다(Berry, 1997; Berry, Kim, Minde, & Mok, 1987; Joo, 2002). 특히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진 미주 한인 1세대들은 미국 내 다른 소수 민족에 비해 현지문화 적응에 심한 갈등을 경험하며(Chon, 2007; Farver & Lee-Shin, 2000), 미국 주류사회에 융합되지 못하고 경제문제, 언어장벽, 가정문제 등으로 불안, 우울등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성희 · 박기환, 2007; 이소우, 1993; Hovey, Kim, & Seligman, 2006; Smart & Smart, 1995). 이민 후 이들은 전통문화인 유교문화 가치를 유지하며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현지문화의 가치관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문화의 영향을 받는 생활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정도에 따른 가족 개개인의 가치관의 차이는 이들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김혜경, 1997; 이지숙, 2006).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서구문화에 빠르게 익숙한 2세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하였다. 특히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인 1세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양육방식, 양육철학, 가치관 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안황란, 2007; Cho, 2007; Chon, 2007). 그러므로 이민이라는 환경적 변화가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함으로써 한인1세대 어머니와 2세대 자녀의 애착의 세대간 전이 정도와 애착 발달에 관련된 환경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세대간 전이 이론을 토대로 생활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양육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이민세대를 대상으로 첫째,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어린 시절 한국에서 그들의 부모님과 형성한 내적 표상을 반구조화된 면접(AAI)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둘째,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미주 한인 2세대 대학생 자녀들의 부모님과 형성된 애착 표상을 측정하여, 미주 한인 1세 어머니와 2세 대학생 자녀들 간의 애착 표상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제기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주 한인 2세대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과 그들의 2세대 대학생 자녀의 애착 표상 간에 일치 정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1세대 어머니 25명과 그들의 2세대 대학생 자녀27명(남 17명, 여 10명) 이었다. 연구 대상의 선정 방법은 눈덩이 표집으로서 한인교회의 대학생부 예배 중 광고를 통해 대학생들의 연구 참여를 부탁하고 동시에 어머니들에게 협조를 부탁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은 총 27명이었으나 그중 2명은 어머니가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제외되어 어머니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25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과 대학생 자녀들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들의 연령 범위는 41세에서 60세로 평균 51세(SD = 4.33)이었다. 이들 어머니들은 모두 70, 8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대상 대학생 자녀들을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대학생의 연령은 17세에서 25세 까지로 평균 연령은 21세(SD = 2.00)이고, 출생 순위는 장남 장녀가 11명, 차남 차녀가 12명, 외딸과 외아들이 4명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력은 3명만이 community college에 재학 중이고, UC 계열의 학교(UCLA. UC Irvine, UC Riverside, UC Davis, UC Berkeley)18명, USC 2명, MSMC 1명, UNLB 1명, CSULB 2명으로 나타났다. 2주 뒤 9월 학기 대학에 입학할 학생 2명과 한두 달 전 졸업한 학생 3명도 포함시켰다.

2. 연구도구

George, Kaplan과 Main(1985)이 개발한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성인 애착 면접은 성인인 대상자의 회상을 통해 초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평가하는 도구로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구조화된 질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인 애착 면접(AAI)의 평가 척도는 녹음한 면접 내용을 전사하여 Main과 Goldwyn(1989)의 성인애착 평정척도와 분류 체계에 의해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경험(사랑 경험, 거부 경험, 역할 전도 3가지 차원)과 애착에 관련한 현재 마음의 상태(5가지 차원) 두 과정을 각각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 4가지 차원(질적 측면, 양적 측면, 관련성의 측면, 방

법의 측면)으로 평정한다. 성인의 애착 유형은 진술의 일관성과 8가지 하위차원 점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애착 유형(안정-자율유형, 불안-거부유형, 불안-몰입유형, 불안-미해결/비조직유형)으로 질적 분류 하였다(Main, George, & Kaplan, 1985). 성인 애착 면접과 평가는 연세 대학원 아동·가족학과에서 개최된 성인 애착 면접 평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성인 애착 면접 평가에 대해 연수받고 훈련을 받은 두 명의 교수에 의해 확인 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07년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 장소는 대상들의 편의를 위해 직장에서 실시한 3명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원하는 가정에서 연구자가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비밀 보장과 참여 감사에 대한 안내문을 보여주었으며 인구학적 특징을 알아보는 질문을 시작으로 성인 애착 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상 인터뷰는 어머니들과 한국어로 그들 대학생 자녀와는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서로 한국어를 융통성 있게 섞어 쓰기도 하였다.

모든 면접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전 과정을 2개의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어머니들의 경우 40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이고, 대학생들의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평균 1시간 정도였다. 특히 어머니들과의 면접이 좀 더 길게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한인 1세대 어머니들의 애착표상 유형의 분포와 그들의 2세대 대학생 자녀들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를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다. 둘째, 한인 1세대 어머니와 2세대 대학생 자녀의 애착표상에 따른 아동기 경험과 애착에 대한 현재의 마음 상태와 진술의 일관성 점수를 평균, 표준편차, 범위로 살펴보았다. 셋째,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표상 유형 간에 관계를 일치의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를 가지고 아동기 경험, 애착에 대한 현재 마음의 상태와 진술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애착 표상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한 본 연구 대상 어머니의 애착 표상 분포는 안정유형(36%)보다는 불안정 유형(64%)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안정 유형 중에서도 거부유

〈표 1〉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 (N = 25)

애착 표상 유형		사례수	백분율
안정 유형	자율(F)	9	36%
	거부(Ds)	13	52%
불안정 유형	몰두(E)	3	12%
	미해결/비조직(U/d)	0	0%
전 체		25(명)	100%

〈표 2〉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애착표상유형에 따른 아동기 경험, 애착에 대한 현재의 마음 상태와 진술의 일관성 점수 (*N* = 25)

			안정-자율유형(F) *M(SD)* 범위	불안정-거부유형(Ds) *M(SD)* 범위	불안정-몰입유형(E) *M(SD)* 범위
아동기 경험	부	사랑경험	3.44(1.19) 2.0-5.0	2.00(1.04) 1.0-4.0	1.17(0.24) 1.0-1.5
		거부경험	1.89(1.22) 1.0-5.0	2.92(1.37) 1.0-5.0	4.67(0.47) 4.0-5.0
		역할전도	1.56(0.83) 1.0-3.0	2.00(1.43) 1.0-5.0	3.00(1.63) 1.0-5.0
	모	사랑경험	3.39(1.31) 1.0-5.0	2.00(0.98) 1.0-4.0	1.00(0.00) 1.0-1.0
		거부경험	2.50(1.60) 1.0-5.0	2.69(1.52)1.0-5.0	3.67(1.88) 1.0-5.0
		역할전도	1.78(1.31) 1.0-5.0	2.31(1.50) 1.0-5.0	3.17(1.43) 1.5-5.0
애착에 대한 현재 마음의 상태	부모에 대한 이상화		1.83(0.88) 1.0-3.0	4.08(0.98) 1.5-5.0	2.67(1.03) 1.5-4.0
	아동기 회상의 어려움		2.83(1.41) 1.0-5.0	3.85(1.00) 1.5-5.0	2.50(0.41) 2.0-3.0
	부모에 대한 표현된 분노		2.22(1.11) 1.0-4.0	3.04(0.88) 2.0-5.0	5.00(0.00) 5.0-5.0
	애도나 상처에 대한 해결부족		1.00(0.00) 1.0-1.0	2.18(0.80) 1.0-5.0	3.70(0.94) 3.0-5.0
진술의 일관성			3.10(0.64) 2.1-4.0	2.07(0.51) 1.1-2.8	1.83(0.24) 1.5-2.0

형이 52%인 13명으로 가장 많고, 안정유형인 자율유형이 36%인 9명, 불안정유형인 몰입유형 12%인 3명, 미해결/비조직 유형은 없었다.

각 애착 유형별로 아동기 경험, 애착에 대한 현재의 마음상태, 진술의 일관성 점수의 경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36%인 9명 안정애착 자율유형 어머니들의 아동기 부모와의 사랑경험 척도 점수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모두 평균 3.44점과 3.39점으로 중간보다 높고 거부경험과 역할전도 척도 점수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모두 1.56점과 1.78점으로 중간보다 낮았다.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 경험이 낮은 어머니도 아동기 아버지와의 사랑경험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어머니는 안정-자율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이들 어머니들은 아동기에 아버지에게 받은 정서적 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였다. “내 입학식에 하나도 안 오게 됐어, 온가족이. 그런데 아빠는 혼자 찾아 왔더라고……내 기억에 남은 아빠.”, “아버지는 뭐 책가방을 가져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럴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고, 교육열이 많으신 분이셨죠.”, “자주 아버지 무릎에 누워서 귀도 많이 파주시고…” 등으로 어린 시절 어머니는 자상 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지지적인 양육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표현에 일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 안정-자율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52%인 13명 불안정 거부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아동기 부모와의 경험척도 중 거부경험 척도 점수는 다소 높고, 사랑 경험 척도 점수는 낮게 평가 되었다. 또한 이들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상화척도와 아동기 회상의 어려움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 같아.”, “……어렸을 때?……어렸을 때는 잘 생각이 안나요(웃음).” “특별한 기억은…으…나는 어렸을 때는 기억이 별로 안나요. 어렸을 때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데. 첫딸이라서.” 라고 표현하며 어린 시절을 회상 하는데 어려움을 표현하

였다. 이들 불안정-거부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면접 중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을 지지할 만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여, 과거 애착 대상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더 많이 진술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지지하는 사건들은 진술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네, 저는 아직 까지 그래요. 제가 못하는 거 빼놓고는 저는 부모님들이 너무 아직까지도 미안할 정도로 사랑을 주시니까. 저는 그냥 뭐 너무 황송하죠.", "제가 어린 시절은 우리 아버지가 항상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조금 이름이…있어……그리고 사회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굉장히 straightforward 하고 fair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 뭐 따지거나 이런 거도 없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해주셨고." 라고 부모에 대해 이상화하였다.

셋째, 12%인 3명 불안정 몰입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아동기 거부경험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모두에게 평균 4.67점과 3.67점으로 점수가 높고, 현재 부모에 대해 표현된 분노가 5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아직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싫었고요……무서웠고, 싫었고. 내가……형제들한테, 그런 말 한 게 생각이 난 게 뭐냐 하며는, 우리 아버지 때려줄까?……우리 다섯이서, 다섯이서 아빠 다 붙들면 실컷 때려 줄 수 있어,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고, 무슨 부랑 당 이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싫은 사람."라고 아버지를 표현하였고 울먹이기도 하였다.

2. 미주 한인 2세대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미주 한인 2세대 대학생 자녀의 애착 표상 유형분포는 표 3에 제시한 봐와 같다. 표 3에 의하면, 미주 한인 2세대 대학생의 애착표상 유형 분류에서는 33%인 9명이 자율유형으로, 56%인 15명이 거부유형으로, 7%인 2명이 몰입유형으로, 그리고 미해결/비조직유형은 4%인 1명으로 분류되었다.

〈표 3〉 미주 한인2세대 대학생의 애착 표상 유형분포 (N = 27)

애착표상유형		사례수	백분율
안정유형	자율(F)	9	33%
	거부(Ds)	15	56%
불안정 유형	몰두(E)	2	7%
	미해결/비조직(U/d)	1	4%
전 체		27(명)	100%

각 애착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아동기 경험, 애착에 대한 현재의 마음상태, 진술의 일관성 점수의 경향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33%인 9명 안정 애착 자율유형 대학생들의 아동기 어머니와의 사랑 경험 척도에서 평균 4.4점의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들의 응답은 명료하고 적절하여 진술의 일관성 척도에서도 평균 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신의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예를 들어, "sometimes they made mistakes too and my parents-they will tell me that they're sorry, and that's something that I grew up hearing a lot ……",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하던지, 어렸을 때는 다 엄마한테 얘기 했어요.", "뭐 그런 것은 엄마,

〈표 4〉 미주 한인 2세대 대학생의 애착표상 유형에 따른 아동기 경험, 애착에 대한 현재의 마음 상태와 진술의 일관성 점수 (*N* = 27)

			안정-자율유형 (F) *M(SD)* 범위	불안정-거부유형 (Ds) *M(SD)* 범위	불안정-몰입유형 (E) *M(SD)* 범위	불안정-미해결/비조직유형(Ud) *M(SD)* 범위
아동기 경험	부	사랑경험	2.89(1.45) 1.0-5.0	2.77(1.10) 1.0-4.0	1.00(0.00) 1.0-1.0	1.00(0.00) 1.0-1.0
		거부경험	3.33(1.41) 1.0-5.0	3.27(1.31) 1.0-5.0	5.00(0.00) 5.0-5.0	5.00(0.00 5.0-5.0
		역할전도	1.33(0.67) 1.0-2.0	1.88(1.11) 1.0-4.5	1.00(0.00) 1.0-1.0	1.00(0.00) 1.0-1.0
	모	사랑경험	4.40(0.69) 3.0-5.0	2.81(1.17) 1.0-4.0	2.75(1.23) 1.5-4.0	1.00(1.00) 1.0-1.0
		거부경험	2.11(0.87) 1.0-3.0	4.04(1,01) 2.0-5.0	2.75(1.75) 1.0-4.5	4.50(0.00) 4.5-4.5
		역할전도	1.22(0.26) 1.0-2.0	1.77(1.12) 1.0-4.0	1.00(0.00) 1.0-1.0	1.00(0.00) 1.0-1.0
애착에 대한 현재의 마음 상태	부모에 대한 이상화		2.30(1.16) 1.0-4.0	3.84(0.86) 2.0-5.0	3.50(1.50) 2.0-5.0	1.00(0.00) 1.0-1.0
	아동기 회상의 어려움		2.88(1.19) 1.0-5.0	4.15(0.86) 2.0-5.0	3.50(1.50) 2.0-5.0	2.00(0.00) 2.0-2.0
	부모에 대한 표현된 분노		2.40(0.83) 1.0-4.0	3.61(0.89) 2.0-5.0	4.00(1.00) 3.0-5.0	5.00(5.00) 5.0-5.0
	애도나 상처에 대한 해결부족		1.10(0.31) 1.0-2.0	1.65(0.99) 1.0-4.0	5.00(0.00) 5.0-5.0	4.00(0.00) 4.0-4.0
진술의 일관성			4.00(0.50) 3.4-5.0	2.59(0.99) 2.0-3.5	2.00(0.00) 5.0-5.0	2.50(0.00) 2.5-2.5

아빠한테 다 얘기 하고, 엄마한테는 complaint 많이 했죠.” 라고 진술하였다.

둘째, 56%인 15명 불안정 거부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생들의 애착 표상의 특징은 아동기 회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에 대해 이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어머니로부터의 거부경험도 4.04점의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억이 없어요, 하도 눈치 보면서 살고 그랬으니까. 떨어져서 살면 더 좋은 거 같아요.”, “집에서 쫓아 낸 적이 있어요, 화났을 때는 그냥 속으로 참았어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요.” 라고 진술 하여 부모에 대한 거부경험은 많지만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기억이 없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셋째, 7%인 2명 불안정 몰입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생들은 아버지로부터의 거부경험에서 평균 5.0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부모에 대해 표현된 분노와 아직 그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I…I don’t know about being rejected from my dad but I would say I kind of felt neglected… like, during those first couple years up until like I’d say like highschool. I felt-I felt neglected you know and so I felt like um…. I felt like on paper it was like father, son, you know, he was doing his own thing and I was doing my own thing.”, “since my parents can’t speak English, I thought they weren’t like smart. so I kind of like looked down on them so sometimes I like. 싸가지가 없어(웃음). I don’t know. I can’t explain it.” 라고 표현하며 진실성이 있지만 문장이 길고, 앞 뒤

〈표 5〉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도(4개 유형) 단위 : 명(%)〔각 유형별%〕 (*N* = 25쌍)[1]

		자녀의 애착표상				
		자율 (F)	거부 (Ds)	몰입 (E)	미해결/ 비조직 (Ud)	전체
어머니 애착 표상	자율(F)	6 (66.7)	2 (22.2)	1 (11.1)	0 (0)	9[36] (100)
	거부(Ds)	3 (23.2)	9 (69.2)	0 (0)	1 (7.6)	13[52] (100)
	몰입(E)	0 (0.0)	2 (66.7)	1 (33.3)	0 (0.0)	3[12] (100)
	미해결/비조직(Ud)	0 (0.0)	0 (0.0)	0 (0.0)	0 (0.0)	0 (0.0)
전체		9[36]	13[52]	2[8]	1[4]	25[100]

말이 맞지 않아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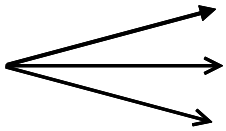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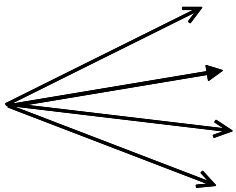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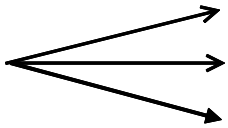
넷째, 4%인 1명 불안정 미해결/비조직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생은 부모에 대한 분노도 많고 애도나 상처에 대한 해결 부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um……I think just like them working and um……I like once again like language and I like them working and um…… I like like once again that they grew up and just the way they went to school was very different from how I was going to school. So I think just like um comprehension wise in that sense, I like trying to like understand was like very difficult.", "It was harder……emotionally……yeah…so… kind of separated cause like um I guess background wise they grew up in like korea and I'm like growing up in America so just like the understanding was like very um different." 라고 표현하여, 이 대학생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와 2세대 대학생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유형간 의 일치의 정도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와 2세대 대학생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와 표 6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자녀와의 애착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은 안정애착 유형은 66.7%, 불안정애착 유형은 81.3%이었다.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이 안정-자율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9명이었는데, 그중 66.7%인 6명 어머니의 대학생 자녀가 안정-자율유형으로 나타났고, 2명은 불안정-거부유형으로, 다른 1명은 불안정-몰입유형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불안정-거부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사람은 13명이었는데, 그중 76.9%인 10명은 그들의 대학생 자녀도 불안정-거부유형으로 나타났고, 3명은 안정-자율유형으로, 1명이 불안정-미해결/비조직유형으로 나타났다. 불안

1) 연구에 참여를 거부한 어머니의 대학생 자녀(2명)를 제외한 대상 수이다.

〈표 6〉 어머니와 대학생간의 애착 전이 (*N* = 25쌍)

어머니		대학생 자녀
자율유형(F) *N* = 9		자율유형(F) *N* = 6 (66.7%) 거부유형(Ds) *N* = 2 (22.2%) 몰입유형(E) *N* = 1 (11.1%)
거부유형(Ds) *N* = 13		자율유형(F) *N* = 3 (23.2%) 거부유형(Ds) *N* = 9 (69.2%) 몰입유형(E) *N* = 0 (0.0%) 미해결/비조직유형(U/d) *N* = 1 (7.6%)
몰입유형(E) *N* = 3		자율유형(F) *N* = 0 (0.0%) 거부유형(Ds) *N* = 2 (66.7%) 몰입유형(E) *N* = 1 (33.3%)

정-몰입유형으로 분류된 3명의 어머니 중 33.3%인 1명은 어머니의 대학생 자녀도 불안정-몰입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는 2명은 거부유형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들의 애착 표상 일치율은 네 개(자율, 거부, 몰입, 미해결/비조직) 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64%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과 자녀의 애착 표상 유형을 안정 유형과 불안정 유형 2개의 범주로 나누었을 때는 일치율은 76%이었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애착 안정유형으로 분류된 경우는 모두 6쌍으로 24%였으며, 어머니가 불안정 유형이면서 자녀도 불안정 유형으로 나타난 경우는 13쌍으로 52%였다. 어머니가 불안정 유형이었으나 자녀가 안정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는 3쌍으로 12%이었으며, 반대로 어머니가 안정 애착 유형이나 자녀가 불안정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 또한 3쌍으로 12%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자녀 간 애착 유형 세대간 전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양육환경의 변화 요인

으로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경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한 한인 1세대 어머니와 2세대 대학생 자녀에게 성인 애착 면접을 실시하고 그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과 어머니세대와 대학생 자녀세대간의 일치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에서 36%의 어머니가 안정-자율유형으로, 52%의 어머니가 불안정-거부유형으로, 그리고 12%가 불안정-몰입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불안정-미해결/비조직유형으로 분류된 사람은 없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애착 표상 분포는 국내와 국외에서 특정 집단이 아닌 중류층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안정-자율유형 분포가 68% 이상으로 우세한 전형적인 연구들(진미경, 2006; Benoir & Parker, 1994; Das Eiden, Tei, & Corns, 1995)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어머니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애착 표상 분포를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1998년의 국내 연구에서 중류층 어머니 20명(평균 연령 30세)을 대상으로 한 장미자와 양연숙(1998) 연구의 대상과 비교해 보면 애착 유형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안정-자율유형 60%, 불안정-거부유형 20%, 불안정-몰입유형 5%, 불안정-미해결/비조직유형 1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36%가 어머니의 안정-자율유형으로 분포된 점은 Ward와 Carlson(1995)이 십대 청소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 유형 분포에서 32%의 안정-자율유형 분포를 보인 경우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자율유형 32%, 불안정-거부유형 63%, 불안정-몰입유형 9%를 나타내는 연구(Weinfield, Sroufe, & Egeland, 2000)와 애착 표상 유형 분포가 비슷하였다. 또한 안정-자율유형이 불안정-애착유형 보다 현저하게 적은 분포를 보이는 점에서 다른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와 유사하다(Bailey, Moran, & Person, 2007; Wallis & Steele, 2001). 그들은 이런 유형 분포를 보인 결과에 대해서 부적당한 양육행동, 어머니의 우울증, 결핍된 가족역할, 생활 스트레스(stressors) 같은 부정적인 생활환경이 애착표상 유형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 어머니들의 어린 시절 양육경험에 대한 진술에서 부정적인 생활환경이 보인다.

특히 불안정 애착 유형(거부유형과 몰입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불화와 이런 부정적인 생활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 시절 부모에게 지지와 관심을 받지 못하고 거부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 하였다. 또한 거부유형 어머니 중 8명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랑이 많은 양육자로 진술하였지만 실제로 이를 지지할 만한 어떠한 관련 경험도 기술하지 못하여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해 지나치게 이상화시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안정-몰입유형으로 분류된 3명(12%)중 2명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경제적 빈곤과 아버지의 폭력,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부적당한 양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머니를 항상 걱정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현재 부모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였다. 특히 이 두 어머니는 어린 시절 정신질환 증상인 우울증과 간질 증상을 겪은 적도 있다고 이야기하여, 아동기 신체적 학대와 같은 부당한 양육행동은 발달에 가장 해로운 영향을 미치

는(Bolgar & Patterson, 1995) 동시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Briere, 2002). 또한 이런 부당한 양육 경험은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정 애착 유형을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하는 요인(Waters, Weinfield, & Hamilton, 2000)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물론 그들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유형이 안정-자율유형인 어머니들이 있었는데, 이들 어머니도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들 어머니는 어린 시절 부모들로부터 지지적인 양육과 사랑을 받았고, 거부 경험도 없었으며, 가족이 서로 돕고 의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즉,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부적당한 환경에서 생길 위험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여(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안정-자율유형 어머니들은 유아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질에 부정적인 생활환경이 변수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어머니들은 70, 80년대에 한국에서 자신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위해 미국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Abelman & Lie, 1995)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이들 이민 1세대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에서는 불안정 애착 분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안정-미해결/비조직유형에 속하는 대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어머니와 학생 양측의 동의를 구해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인터뷰에 끝내 동의하지 않아 표집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수가 적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국 본 연구의 한인 1세대 어머니들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는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안정 애착 표상 유형은 적고, 불안정 애착 표상 유형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애착 유형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2. 미주 한인 2세대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미주 한인 2세대 대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표상 유형은 어머니의 성인 애착 면접을 실행하지 못한 두 명의 대학생을 포함한 27명 중 33%인 9명이 안정-자율유형에 속했고, 56%인 15명의 학생이 불안정-거부유형이었고, 7%인 2명이 불안정-몰입유형으로, 4%인 1명이 미해결/비조직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분류 분포는 그들 어머니의 애착 유형 분포와 거의 같은 비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 분포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Creasy(2002)가 대학생 커플 145명(평균 연령 20세, 연령 범위 18-25세, SD = 2.62)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면접을 실행한 연구에서 안정-자율유형 40%, 불안정-미해결/비조직유형 26%를 보고하고 있으며, Hesse와 Van IJzendoorn(1999)은 140명의 버클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정-자율유형이 41%, 미해결/비조직유형이 20%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미국 대학생의 애착 표상유형을 밝힌 위 두 연구를 비교해보면, 본 연구보다 안정-자율유형은 다소 많고, 불안정 유형(거부유형, 몰입유형, 미해결/비조직유형)의 분포는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불안정-미해결/비조직유형은 부모의 예

측할 수 없었던 부적당한 행동(학대)으로 유아를 겁에 질리게 하는 것(Van IJzendoorn, Schuengel, & Bakermans-Kranenburg, 1999)을 형성 원인으로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속되는 부모 간에 갈등(Owen & Cox, 1997)이라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불안정-미해결/비조직유형은 미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명뿐이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연구 대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 대상은 한국 문화를 가진 한국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핵가족 중심의 미국 문화와는 다를 수 있다. 한국 이민자 가정에서는 조부모가 중요한 양육자 역할을 하고 또 자녀양육에 영향을 가진다(김혜경, 1997). 따라서 한국적 문화 배경의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보다 전체 가족 관계가 아동의 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Rothbaum, Rosen, Ujile, & Uchida, 2002)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면접 진술에서도 두 명의 대상자는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함께 부모 사이의 갈등을 진술하였지만 미해결/비조직유형이 아닌 불안정-몰입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들은 할머니가 거의 부모 역할을 하였으며 따뜻하게 돌봐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미국 내 다른 대학생과 비교해 볼 때 한인 2세대 대학생은 불안정-거부유형 분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식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Danico, 1998; Farver & Lee-Shin, 2000; Kim & Chung, 2003)을 보이는 한인 1세대 부모들과 미국 주류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배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화적 갈등(Song, 2000)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불안정-거부유형 대학생들의 진술에서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애착 관련된 기억은 거의 없고, 부모와의 관계가 막연히 좋고 이상적인 관계로 진술하였다. 또한 심한 거부 경험과 학대 경험을 나타내면서도 자신들을 바르게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부모들을 이상화시켰으며, 불안정-거부유형으로 분류된 한 대학생은 자신도 부모가 되어 자녀를 교육시킬 때 매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지지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경우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엄하고, 상호작용이 없었다고 묘사하였으며, 문화적 가치가 다른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야기하였다. 특히 아직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3명(연령 범위 17세~18세) 중 2명의 대학생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부 경험을 많이 진술하며 현재 부모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소년기에는 안정-자율유형보다는 불안정-거부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Ammaniti, van IJzendoorn, Speranza, & Tambelli, 2000; Ber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9;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1996).

안정-자율유형(9명인 33%)의 대학생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지지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기억과 사건들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또한 부모를 이상화하지 않고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기억들도 진술하였다. 이들 안정-자율유형으로 분류된 여자 대학생(2명)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지적인 양육경험을 특별하게 진술하였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공주님이

라고 부르고 자신이 정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가 있었고, 때로는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도 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믿어주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학생은 어렸을 때 오빠와 자주 싸웠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손바닥을 때렸는데 아버지는 항상 자신 편에서 이해해 주었고, 항상 뽀뽀해주었다고 하며, 그런 자신은 아버지의 작은 요정이라고 묘사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와 자상한 행동은 아동의 안정 애착 유형 형성에 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양미경 · 조복희, 2000; 이영환, 1999; Grossmann, Grossmann, Fremmer-Bombik, Kindler, Scheuerer-Englisch, & Zimmermann, 2002)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반면 불안정-몰입유형의 대학생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심한 언어폭력, 거부, 신체적 학대 경험을 묘사하였고, 현재 부모에 대한 분노도 표시하였다. 특이한 사실은 이런 아버지와의 거부적인 양육 경험을 하면서도 다른 애착 대상인 어머니한테도 충분한 지지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이다. 불안정-미해결/비조직유형으로 분류된 학생은, 어린 시절 부터 아버지의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행동과 어투가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인데 가정에서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 아버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신체적인 학대가 아닌 언어폭력과 문화적 차이 또한 자녀의 애착 표상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한인 2세대 대학생의 애착 표상 유형은 청소년기의 특징을 보여주었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불안정-거부유형이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3.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와 2세대 대학생의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

미주 한인 교포 1세대 어머니와 그 대학생 자녀와의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어머니와 자녀 모두 안정-자율유형으로 분류되는 쌍은 모두 6쌍으로 24%, 어머니와 자녀 모두 불안정-거부유형인 쌍은 9쌍으로 36%, 그리고 불안정-몰입유형의 쌍은 1쌍으로 4%로 네 가지 유형 간에 일치율은 64%이었다. 25쌍의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 중 18쌍이 애착 표상 유형 간에 일치를 보인 것이다. 한편, 애착 유형을 안정(24%)과 불안정(52%) 두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는 76%의 일치율을 보였다.

애착연구 중 직접적으로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의 애착 표상 유형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할머니와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과 유아의 애착 유형을 비교하여 3대 간(할머니, 어머니, 유아)의 애착 유형을 연구한 Benoir와 Parker (1994)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Benoir와 Parker (1994)연구에서는 일치율이 65%로 나타나 64%의 일치율을 보인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간의 안정-자율유형 안에서의 일치율 분포가 66.7%, 불안정-거부유형 안에서의 일치분포가 69.2%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그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 환경 요소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악화되어 지속성을 갖도록 한다는 추론(Hamilton, 2000)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와 자녀간의 높은 애착 표상 유형 일치율로 세대간 전이 이론을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결과는 애착 관계의 형성과 변화에서 부모와 자식관계라는 이원적 체계가 아닌 가족문화, 가족체계,

사회적 자원 등을 포함한 가족 생태학적 맥락 또한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Cowan, Cohn, Cowan, & Pearson, 1996; Fiering, Fox, Jaskir, & Lewis, 1987). 즉 한인 1세대 부모들은 자신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적응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동기에 한국에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운 양육 방식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여, 칭찬과 신체적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지지적인 미국식 양육행동과는 다르게 지시나 경고 때로는 체벌로 매를 가하는 양육태도(한인 1세대 부모의 79%)를 보인다(Kim & Hong, 2007). 본 연구의 면접 진술에서 25명의 대학생 중 안정-자율유형 2명을 포함한 15명은 어린 시절의 체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안정-자율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생들은 체벌을 사용하는 것은 부모의 한국식 양육 행동이라고 하며 미국의 문화를 수용한 자신들은 다음 세대의 양육행동에 있어 그들의 부모와 다를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은 다른 민족의 이민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고 하였다(Farver & Lee-Shin, 2000). 특히 한인 1세 아버지들은 유교적 사고로 자녀들에게 감정의 표현을 하지 않아 미국에서는 흔하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양육 행동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Gordon, 2000). 하지만 미국 문화에서 태어난 한인 2세대들은 어린 시절 미국문화를 수용하지 않은 첫 이민 세대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언어 등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성인기 대학 재학 중 자신들의 문화 배경인 한국 문화를 포용하고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여 자신의 자녀 양육에 두 문화를 잘 절충시킨다(Chon, 2007)고 하였다. 특히, 첫 이민 세대는 개인 이민보다는 가족 단위로 미국 이민을 떠나(Kim, 1978) 조부모를 비롯해 친척들이 가까운 근교에 거주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한인 교회를 통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Chon, 2007). 이처럼 한인 이민 가족의 이중적 문화, 사회적 관계망 들이 이들의 애착 표상의 세대간 전이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머니가 불안정-거부유형으로 분류되었지만 자녀는 안정-자율유형으로 분류된 3명의 진술을 통해 지지된다. 예를 들어, “When my mom worked, and my dad worked, they dropped me off at my grandma’s house, and she took care of me when I was younger”. “My mother did have a greater emphasis and my, my grandma too.” 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한 명의 안정-자율유형으로 분류된 학생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하시고 아버지는 자신을 돌볼 수 없었던 어린 시절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들 집에서 자신을 딸처럼 귀하게 대해 주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 대학생은 “Well I was young, very young, and then I was staying with this 목사님 at this church that we went to, and I really liked them and I thought of them as my grandma and grandpa. So I liked it-I didn’t want to go back home, (laughs) I remember.”, “When I went back home, I was weird. Like uh…I wanted to go back to the 목사님. I was weird.”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와 2세대 대학생 자녀의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은 매우 높으나, 이들 이민생활에서 경험하고 형성하게 되는 이중문화적 가치, 세대간 가치관의 갈등,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 정도 등 다양한 환경적 특성들이 자녀들의 애착 표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수가 적고 특히 LA라는 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 이민가족(1세대 어머니와 2세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민가족의 이민 동기나 이민가족의 생활환경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성인 애착면접(AAI)을 이용하여 한인 1세대 어머니와 2세대 대학생 자녀들의 애착 표상을 살펴보고, 다양한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양상을 살펴본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주 한인 1세대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분포는 36%가 자율유형, 52%가 거부유형, 몰입유형이 12%로 분류되어, 안정유형 36%와 불안정형 64%로 나타났다. 둘째, 미주 한인 2세대 대학생의 애착 표상 유형을 분류했을 때 33%가 자율유형, 56%가 거부유형, 7%가 몰입유형, 그리고 미해결/비조직유형이 4%로 분류되었다. 셋째, 한인 1세대 어머니와 2세대 대학생 자녀의 애착 표상 유형간 64%가 일치하였고, 안정과 불안정 두 차원으로 나누었을 때는 76%가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미주 한인 1세대의 성인 애착 표상 유형 분포는 정상 집단보다는 저소득 집단이나 임상 집단에서 보이는 분포와 더 가까웠으며, 애착 표상 유형간 세대간 전이 비율이 매우 높다.

참 고 문 헌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 : 미국 이민 가족 내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안황한(2007). 미국 이민 한국 여성의 문화이입적 스트레스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6**(2), 160-173.

양미경 · 조복희(2000). 에릭슨의 발달 과업으로 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유아-아버지 간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57-64.

오성희 · 박기환(2007).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한국에 호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1**(4), 55-69.

이소우(1993). 미국이민 한국인의 스트레스 반응양식과 생활사건과의 상관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2), 299-315.

이영환(1999).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과 유아의 애착 안전성. **대학가정학회지, 37**(12), 91-102.

이지숙(2006). 두 가지 측면의 세대 갈등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 미국 거주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1-22.

장미자 · 양연숙(1998). 어머니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7), 69-82.

장미자 · 조복희(1999). 애착의 세대간 전이-어머니의 내적 실행 모델과 영아의 애착 유형-. **아동학회지, 20**(1), 147-164.

진미경(2006). 영아의 애착 유형과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7,**(6), 69-79.

최해훈 · 이경숙 · 김태련(1998).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132-142.

Abelman, N., & Lie J. (1995). Blue dreams : *Korean Americans and the Los Angeles Riot.* United States : Havard University Press.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Ammaniti, M., van IJzendoorn, M. H., Speranza, A. M., & Tambelli, R. (2000). Internatio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during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an exploration of stability and chang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3), 328-346.

Bailey, H. N., Moran, G., & Pederson, D. R. (2007). Childhood maltreatment, complex trauma symptoms, and unresolved attachment in at-risk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9*(2), 139-161.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09). The first 10,000 adult attachment interview : Distributions of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clinical and non-clinical group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 223-263.

Benoit, D., & Parker, K.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Berry, J. W. (1997). Immigrant,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Berry, J. W., Kim, U. C.,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acculturative stres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 IMR, 21*(3), 491-511.

Bolgar, K. E., & Patterson, C. J. (2000).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 549-568.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2nd eds.)* New York : Basic Books.

Briere, J. (2002). Treating adult survivors of sever childhood abuse and neglect : Further development of an intergrative model. In J. E. B. Myers, Briere, C. T. Hendriz, C. Jenny, & Reid (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2nd ed.). Newbury Park, CA : SAGE.

Broussard, E. R., & Cassidy, J. (2010). Maternal perception of newborns predicts attachment organization in middle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2,* 159-172.

Cain, C. S. (2006). *Attachment Disorders : Treatment strategies for traumatized children.* Lanham :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Cho, 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tress and mothers' perception of their preschool children's social behavior : A cross-cultural study of immigrant korean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mother in Korea. University of North Texas. Doctoral Dissertation.

Chon, E. E. (2007). Parenting style of 1.5 generation Korea Americans. Allian Inter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kag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al Psychology, 64*(1), 53-63.

Creasy, G. (2002). Association between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conflict management behavior in romantic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63-375.

Danico, M. K. U. (1998). The process of becoming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on ethnic identity. University of Hawaii. Doctoral Dissertation.

Das Eiden, R., Teti, D. M., & Corns, K.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Egeland, B., & Farber, E.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Egeland, B., & Sroufe, L. A. (1981). Developmental sequelae of maltreatment in infancy. In R. Rizley & D. Cicchetti (Eds),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child maltreatment* (pp. 77-92). San Francisco : Jossey-Bass.

Farver, J. A., & Lee-Shin, Y. (2000). Acculturation and Korean-American children's social play behavior. *Social Development, 9*(3), 316-336.

Feiring, C., Fox, N. A., Jaskir, J., & Lewis, M. (1987).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infant risk statu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00-405.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George, C., Kaplan, N., & Main, M. (1985).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Gordon, T. (2000).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The proven program for raising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 NY : Three Rivers Press.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 Father's sensitive & challenging play as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3), 690-694.

Hesse, E., & van IJzendoorn, M. H. (1999). Propensities towards absorption are related to lapses in monitoring of reasoning or discourse during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 67-91.

Hovey, J., D., Kim, S. E., & Seligman, L. D. (2006). The influence of cultural values, ethnic identity, and language use on the mental health of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0*(5), 499-511.

Joo, C. (2002). A comparison of Korean-speaking and English speaking 1.5 generation adolescence : Assimilation, ethnic identity, and spirituality.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Doctorial dissertation.

Kim, B. L. (1978). *The Asian Americans. Changing patterns, changing needs.* New Jersey :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Inc.

Kim, H., & Chung, R. H. G. (2003). Relationship of recalled parenting style to self-perception in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 481-492.

Kim, E., & Hong, S. (2007).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 parents' perception of disciplin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3*(1), 60-68.

Main, M., & Goldwyn, R. (1989). *Interview-based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s : Related to infant-mother and infant-father attachmen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Owen, M. T., & Cox, M. J. (1997). Marital conflict and development of infant-parent attachm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152-164.

Resse, E. (2008). Maternal coherence in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is inked to maternal reminiscing and to children's self concept.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0*(4), 451-464.

Rothbaum, F., Rosen, K., Ujiie, T., & Uchida, N. (2002). Family systems theory, attachment theory, and culture. *Family Process, 41*(3), 328-350.

Sagi, A., van IJzendoorn, M. H., Scharf, M., Koren-Karie, N. Joels, T., & Mayseless, O. (1994). St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 A psychomentric study in young Israeli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30*(5), 771-777.

Smart, J. F., & Smart, D. W. (1995). Acculturation Stress : The experience of the Hispanic immigrant.

The counseling Psychological, 23, 25-42.

Song, S. L. (2007). Explor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 immigrant families with a focus on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young adult communication styles. California States University, Long Beach. Doctoral Dissertation.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1996).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fathers, adolescents, and clinical groups : A meta-analytic search for normative data.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4,* 8-21.

van IJzendoorn, M. H., Schuengel, C., & Bakermans-Kranenburg M. J. (1999). Disorganized attachment in early childhood : Meta-analysis of precursors, concomitants, and sequelae. *Development Psychopathology, 11,* 225-249.

Vaughn, B. E., Egeland, B., Sroufe, L. A., & Waters, E. (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twelve and eighteen months :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

Wallis, P., & Steele, H. (2001).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adolescence : Further evidence from psychiatric residential setting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3), 259-268.

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Waters, E., & Cummings, E. M. (2000). A Secure base from which to explore close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1,* 164-172.

Waters, E., Merrick, S., Treboux, D., Crowell, J., & Albersheim, L. (2000).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 A twenty-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1*(3), 684-689.

Waters, E., Weinfield, N. S., & Hamilton, C. E. (2000). The stability of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 General Discussion. *Child Development, 71*(3), 703-706.

Weinfield, N., Sroufe, L. A., & Egeland, B. (2000). Attachment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in a high-risk sample : Continuity, discontinuity, and their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71,* 695-702.

2011년 4월 30일 투고, 2011년 7월 28일 수정
2011년 8월 1일 채택